

공식행사  
라운드테이블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라운드테이블 발제문

모르텐 샤에름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

내외귀빈 여러분,

2023년 개정 후 같은 해 6월에 발표된 SDG 보고서를 정독해 보면, 거의 모든 SDG 목표 달성 진행도에 대해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부문에서 우려스러운 트렌드가 형성되는 가운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전 세계 기아 수준이 2005년 이래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6억 70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극빈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극빈 인구는 2030년까지 5억 7,50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 세계 국가 중 1/3만이 국가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야심 찬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식품 가격은 2015년~ 2019년 대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학습 방치 및 후퇴의 여파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까지 무려 8,400만 명이나 되는 아동들이 학교를 떠나고, 그와 별개로 3억 명의 아동 또는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읽고 쓰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졸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통계자료는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이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도시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지를 보여주는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 거주 인구는 2050년까지 전체 인구의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곤 관점에서 보면, 약 11억 명의 인구가 도시 내 빈민가 또는 빈민가와 유사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30년 동안 도시 내 빈민가 거주 인구가 20억 명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통계 수치들이 도시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시 공무원에게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전환을 이루어 빈곤을 퇴치할 기회가 있습니다. 빈곤과의 싸움은 국가/지방 경제 및 지역사회의 역량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복합적인 도전과제입니다.

지역 공동체는 빈곤에 처한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구성원 집단 및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에 좋은 여건과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체계적인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하고 역량이 강화된 시민들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지방정부가 먼저 해당 지역의 현장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도시는 빈곤 구조, 차별, 학교 자퇴율, 노숙 등의 이슈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도시가 시민들의 인권 관련 과제들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이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권 과제들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기존 행정 데이터 분석: 인권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는 행정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조사: 정기적인 조사는 물, 위생, 모빌리티 정보, 교육, 건강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같은 인권 도전과제들의 패턴을 식별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확보한 도시는 교육기관, 비정부기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정책의 당사자가 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를 보유한 지방 당국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더라도, 초기 작업을 효과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재정 및 인적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파편화되어 지원 활동 및 기간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훌륭한 사례를 보여주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례로서, 콜롬비아 메델린 시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하고 있습니다. 메델린 시는 단 13년 만에 빈곤율을 36%에서 14%로 줄였습니다. 메델린 시 프로젝트에서는 모빌리티가 빈곤 퇴치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빌리티 개선을 통해 교육, 일자리, 의료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룬드 시 정부와 라울발렌베리 인권 연구소가 함께 인권 중심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을 통해 취약인구의 모빌리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룬드 시의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과 성인들의 학교/직장 접근성을 살피는 동시에, 장애인들의 버스/트램 접근성을 평가하고 있음.

룬드 시와 메델린 시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의 버스/트램 기사들이 매우 중요한 인권 행위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시민들의 교육권, 건강권, 근로권 등 필수적인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2023년 SDG 보고서에 언급된 상황의 심각성을 반추해 봅시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은 적절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은 안전하고,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갖추려면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 도시들이 동력 교통 시스템을 도보 및 자전거 시스템과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모빌리티 계획 하에, 해당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에 인권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빌리티 이슈는 아동 노동과 같은 또 다른 시급한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등 여러 국가에서 아동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동이 유해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악화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타쿠르가온 시는 저희 연구소의 BLC 참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유해한 아동 노동을 줄이고 근절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방 정책에 인권기반 접근법(HRBA: 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도시 빈곤의 근본 원인 해결에 있어서 인권을 최우선시한 것입니다. 타쿠르가온 시는 인권기반 접근법을 정책에 통합함으로써 훌륭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 노동자 216명이 노동이 아닌 정규 학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아동 노동을 근절하고, 아동을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가난 때문에 노동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SDG를 달성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들은 무역 허가증을 신청하고 조달에 참여할 때 인권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아동노동 금지 선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아동 노동이 있는지 감시하고 아동노동 근절 노력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감시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정부 기관은 아동 노동자의 부모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였습니다. 타쿠르가온 시의 이니셔티브는 인권을 지방정부 정책에 통합하여 빈곤과 차별을 해결하는 전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2030 목표를 달성하고 전 세계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장족의 발전을 이루려면, 도시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거대하고 복잡하며 때로는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달성 불가능한 과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노력을 모은다면, 전체 지역사회에 경제적 번영과 인간적 웰빙을 포함하여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